How to establish the certified manuscript editor system in Korea

허선 (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우리나라 과학 학술지 원고편집을 국제수준으로 할 수 있는 전문원고편집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까?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만드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에서 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은 우리 사회에서 잘 알려진 전문직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유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소정의 훈련을 받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해당 분야 일정 수준 이상 업무 질을 보장하여 국민의 서비스 수혜 혜택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전문원고편집인은 이런 고위험 (High stakes)의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잘 훈련된 전문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전문원고편집인제도를 정착 시킨 곳은 미국으로 의생명과학 학술지 원고편집인의 수요도 많고 시장이 크기에 일정 수준의 업무 수준을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런 제도 아래 자격증 소지 여부와 업무 맡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자발적인 제도에 수많은 원고편집인이나 편집인이 자격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는 것은 자신의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여 본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 전문원고편집인제도는 국제 민간자격증 제도와 어떤 차별이 가능할까?

원고편집인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앞 시간에서 익혀서 알 수 있는데 이런 일에 자격증까지 필요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결국 이 분야 전문가의 자발적인 평가이지 결코 시장 독점 위한 울타리를 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기존에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BELS (Board of Editors in the Life Sciences) 시험을 치루면 충분하지만, 문제는 이 시험은 의생명과학 분야만 해당하고 영문으로 치르므로 영어 원어민이 아닌 한 합격이 매우 어렵다. 즉, 원고편집에서 영문 작성의 양식과 더불어 논리적 사고를 물어보고 또한 Copy editing을 점검하는 것이라 원어민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합격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과학 학술지를 위한 우리 실정에 맞는 별도의 훈련과 자격기준이 필요하며 과학 전 분야를 다룬다. 물론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과 같이 전문 분야를 나눌 수도 있다. 영문교열과 논리에 관한 한은 별도로 영어 원어민의 점검이 필요하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 우선 2012년 9월 BELS Secretary 초빙 강의하여 미국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알아본다.
2) 2013년 9월 국내 첫 BELS exam을 시행하는데 최소 20명이 신청하여야 가능하다.

3) 2014년 3월 전문원고편집인 민간자격증 등록하고 초기에 과편협 교육연수위 주도로 운영하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별도 기구로 독립하도록 한다.

자격은?

1) 학사 이상 학력
2) 실무 경력 2년 이상
3) 원고편집인 훈련과정 16시간 이상 이수
4) 자격시험 합격하여야 함

자격 유지 조건은?

1) 훈련과정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
2) 7년에 한 번씩 재시험

결론

우선 이렇게 안을 만들어 보고 소수라도 관심 있는 원고편집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하면서 학술지 편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이런 자격증은 현재 이 분야 업무를 하는 분을 위한 훈련과정의 일환이므로 결코 진입 장벽이 아니다.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전문 자격증을 받고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환으로 여기면 충분하다. 이런 제도가 생기면 편집인은 원고편집을 맡길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인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학회 내에서 학술지 담당 업무를 다루는 사무원이나 출판사에서 원고편집을 다루는 직원, 편집인이나 편집위원 등 다양한 직책으로 학술지 편집에 관여하는 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